1세기 2세기에 대응되는 세대로 구별을 하는데 엘로어의 자음의 문자 배열을 그대로 따라 시간대로 읽는다.

이를 바탕으로 겐샤 시대, 나니아 시대라고 읊으며 구체적인 시간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창세기 이전의 정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창세기 이전부터 살아온 존재로 추측되는 칸토와 프라이머나 칸사츠샤 코코로의 말을 들어보면 창세기 이전에도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순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무대의 주인공이 바뀔 경우(두명일 경우 별과 안내자중 한명이라도 바뀔 경우) 순환이 갈라진다. 순환이 갈라질시 네가지 변화가 생긴다. 순환이 바뀌기 위해서는 균형의 권한 심층을 사용하거나 하나의 가능성으로 정해진 엔딩을 보는 것 뿐이다.

1. 주인공이 교체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주인공은 서술자의 위치로 내려간다.
2. 현재 가동중이던 모든 시스템이 멈추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변수 제외)**
3. **시련이 되지 못한 사건은 효력을 영구적으로 잃는다.**
4.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며 무대 위 모든 가능성이 바뀐다.**

**1회 순환**

* 겐샤
  + 무대 설립(게르타니샤만) - 조율자 탄생 - 인페르마, 펠레시마 설립
* 나니아
  + 영령/메르메타 탄생 - 사물/네토마타 탄생
* 다베르
  + 일부 관찰자(칸토와 프라이머/칸사츠샤 젠토/칸사츠샤 코코로)의 이른 출입 - 아이테르 시니츠 기록보관소 설립 - 녹색연합 탄생
* 루
  + 휴식기 및 안정기 - 2무대 생성 - 3무대 생성/프로제토 설립
* 메
  + 타우마엘과 일부 조율자들의 이탈 후 반역 선언 - **시련의 트리거 발생: 수호자 vs 반역자**
* 베인
  + 전쟁 종료/음의 조율자 직위 박탈 - 인간/게르타니샤 1구역 탄생 - 녹색연합 -> 청색연합으로 확장/각 팀의 구별이 생기며 프로제토가 포함된 3무대가 완벽하게 분리된다.
* 세다와
* 엘레프
  + 인간의 게르타니샤 1구역 침투/일부 인간의 배우 직위 박탈 - 4번째 무대 생성 후 분리 -
* 제노:
  + 세이야의 전생이 바니타를 따라 청색연합으로 들어간다 - 인사야 탄생 -
  + 첫번째 제노의 시대에 마지막은 **첫번째 시련 발생.** **모든 시스템들의 동결과 동시에 숨겨진 마지막 시스템? 의 이른 가동 시작 -** 게르타니샤의 붕괴 - 저승설립 (신들 이탈 직후) - 모이라설립 - 일시적인 안정기

**혼란기**

* 춘
  1. **두번째 시련 발생:** (조율기관 탄생 후 시간이 좀 지남) - 일곱개의 길 탄생(두번재 붕괴 이후 조금의 텀) - 바니타, 하일을 포함한 몇몇 인원이 청색연합에서 나온다.
* 카토
  1. **세번째 시련 발생: 첫번째 길 전파**/그림바라의 검은새의 아이화/클레시스 가문의 저주 시작 - 하일 K. 블라우그의 이탈/그림바라 클레시스 사망/이스타르의 만들어진 마법 침식 - 레시아 네메시스 사망 - 첫번째 길 사상
  2. 후반: 일곱개의 길로 일부 크람시온 가문의 영령들이 편입되며 두번째 길 제작에 들어간다 -> 3번째 기관이 탄생함에 따라 유청이 끝내 청색연합에서 물러난다. -> 3번째 무대의 반파와 칸사츠샤 젠토가 관리자 자격 박탈당한다. 영혼 추출기 제작에 다수의 인원들이 참여하며 쉘터린이 탄생한다. 이후 로마그노측 13명의 조율자들이 행방불명된다. 이들은 세븐 로드웨이에 구금된 채 두번째 길 전파를 위한 매개체로 쓰였는데 그건 다름 아닌 몸을 이룬 음과 양을 실시간으로 적출해 회색/검은 영핵에 적용해 뿌리는 것에 속한다. 처음에는 같은 조율자들의 감시도 있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있었으나, 이후 저승과 모이라가 개입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으러 일곱개의 길 대부분의 조율자들이 나선터라 감시가 느슨해진다.
* 테오
  1. 초반에 백귀야행이 발생하여 청색 연합을 포함한 메르메타에 막강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 이후 백화팀을 제외한 모든 청색연합의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며 공석이던 청사팀의 지도자이자 청색연합의 수장 자리가 메꿔진다. 이후 클레시스의 저주가 세간에 알려지며 클레시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진다. 심향 유향 단야 같은 네임드 클레시스 인물들은 이 시기에 태어난다.
  2. **중반. 네번째 시련 발생: 두번째 길 전파**.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아르셀 크람시온이 이탈하며 잡혀 있던 조율자들 중 살아있는 이들도 폐쇄된 4지부와 5지부에서 탈출을 감행한다. 이때 분노한 수호자측이 4지부 5지부를 공격한터라 루미아라를 포함한 4지부, 5지부 다수의 인원이 사망한다. 이때 메디우스가 수호자측 인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반역자들은 수호자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로 결정한다.
* 파에론
  1. 초반: 인사야에 감시의 첨탑이 생긴다.
* 후
  1. 초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세븐 로드웨이측과 클레시스 가문이 결탁하며 움직이며 메토모리 클레시스(현사행)이 클레시스 가문에서 나오며 가주 자리가 심향에게 양도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세번째 길인 **"열병의 여름"**이 발생한다. 데이브를 포함한 모우론, 그외 대다수 인원들은 여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는데 하일 k. 블라우그는 이때 반역자들을 막기 위해 갈라호른을 불어 이야기를 잠시 멈추었고 이때 사망한 데이브의 앞에 생전의 약속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 칸사츠샤 코코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권한을 사용하여 1번째 이야기를 분리한 뒤 2번째 이야기의 서막을 개장한다.
  + 이후 후의 시대는 전체적인 시간대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2회 순환이 시작된 것의 여파로 이 동안은 수호자들과 반역자들의 세력이 안정되기 시작하며 무대의 재정비가 들어간다. 실질적으로는 프롤로그 챕터이다.

**2회 순환**

* 겐샤/챕터 1. 메인 캐릭터는 데이브 네비아스
  + 초반. 2회 순환의 공식적인 시작 선포 - 시간과 공간의 메아리의 등장
* 나니아/챕터 2. 메인 캐릭터는 쉘터린/리버스 크람시온
  + 쉘터린이 세븐로드웨이 3지부에서 이탈하며 이때부터는 쉘터린의 시점으로 서술되며 챕터 2의 핵심인물이다. 이후 머지않아 데이브 네비아스와 아르마 드 헬리시온이 만나게 되며 3기관의 회원으로 일하게 된다. 시간이 좀 흐른 후 그림자 술래잡기 발생하게 되며 유카사 클레시스가 일시적으로 리타이어 한다. 심향이 그를 살리기 위해 리버스 크람시온과 만나며 파우스까지 합세한터라 조건 달성으로 그림바라 클레시스가 유사 부활한다. 이때 리버스랑 심향이 결탁한다.
  + 2챕 후반에 세븐 로드웨이에서 "열병의 겨울"을 언급하며 3번째 길이 재건에 들어간다.
* 다베르/챕터 3. 메인 캐릭터는 아르마 드 헬리시온 + 현사행/데이로스 드 아다만트 + 클레시스 삼남매
  + **제일 분량이 막대한 챕터**
  + 초반부에 데이로스가 완벽하게 미쳐버린다. 그리고 클레시스 가문을 알게되어 그들과 함께하게 되며 이때부터 데이로스는 아르마의 완벽한 대척점이 된다. 머지않아 심향과 파우스가 리버스로부터 정보를 하나 더 받게 된다. 그것은 바로 '열쇠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곳'이며 이로 인해 카림세르의 지식의 층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데이로스가 세븐 로드웨이 협회가 카림세르로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야류에게 접근하게 된다. 둘의 전투로 인해 야류가 일시적으로 리타이어 하여 재의 우물 트리거가 발생한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자 3기관에서 지원을 오며 데이브, 쉘터린이 일시적으로 리타이어 한다. **이때부터 첫번째 술래잡기가 발생한다. 원은 열쇠?<-클레시스 가문, 데이로스(타깃 유동적) <- 이스카엘(직접관여 X), 3기관 오른쪽 날개 2팀(+열쇠가 이쪽 팀)**
  + 중반부부터 아르마는 클레시스 가문이 정보를 조금 더 습득하는 순간 열쇠임이 발각된다. 심향도 분홍 영핵의 소유자라 바빌게니아까지 진입이 가능한터라 더더욱. 이때부터는 아르마의 시점으로 서술되며 챕터 3의 핵심인물이다. 열쇠임이 발각된 아르마 vs 클레시스 가문-데이로스가 주된다. 아르마를 노린 삼남매+데이로스의 협공으로 그녀는 잡여들어오게 되지만, 애초에 목숨이 아닌 공명조건에 맞는 인물이 목표였던 셋은 저주만 풀어줄 것을 요청한다. 문제가 있다면 공명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곧장 공명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명조건이 결자해지라는 말에 맞게 아르마와 데이로스 둘다 협업할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발동하게 되었다.
  + 후반부에 술래잡기가 일단락된다.
    - 첫번째 엔딩분기가 있다. **쉘터린, 아르마 드 헬리시온, 현사행 모두 마음을 먹는 즉시 시련을 통과하여 가을의 장으로 진입한다.**
* 루: 챕터 4 메인 캐릭터가 없으며 역대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그대로 주역이 된다.
  + 챕터 4 초반
    - 관망만 하던 관찰자 칸사츠샤 니시아가 개입한다. **세번째 길에 해당하는 '가장 서늘한 여름' 사건을 되살리기 위한 '열병의 겨울'이 발생하며 제 1 조율기관이 움직이게 된다.**
    - 두번째 엔딩 분기가 있다. **열병의 겨울은 곧 시련에 해당하기에 현존하는 모든 서술자들이 겨울의 장으로 돌입한다. 해당 시련을 통과하면 모든 서술자들의 시야확장은 4단계로 돌입한다. 만약 실패할 시 열병의 겨울로 인해 특정 인원이 사망한다.**
  + 챕터 4 중반
    - 심향이 아지랑이로 인해 미쳐버리며 클레시스에서 이탈한다. 이 사실을 눈치챈 유향과 단야는 다른 가문 구성원인 아현-애림을 불러들이며 구도가 유향-애림/단야-아현으로 바뀐다.
    - **1차 아지랑이 섬멸전이 일어난다.**
  + 챕터 4 후반
* 메: 챕터 5. 메인 캐릭터는 서술자 전원
  + 모든 떡밥이 회수되고 엔딩이 나는 시기로 엔딩분기에 따라 갈린다.
  + 중반부에 2차 아지랑이 섬멸전이 일어난다. **조건 달성 시 모든 2대 서술자들의 시야확장은 5단계로 진입한다.**
  + 후반부에 3차 아지랑이 섬멸전이 일어난다. 아지랑이 섬멸에 성공할 경우 아르마는 열쇠로서 클레시스 가문을 해방시키고 데이로스의 저주 또한 없앤다. 쉘터린은 정식 관찰자로 승격한다. 데이브는 자신의 목표를 어렴풋이 직시하며 목표를 함께할 '무대의 별'을 찾는 것이 새로운 목표로 추가된다.
* 베인: 챕터 6. 2대 서술자가 물러나게 되며 3대 서술자가 나타난다.  종막 이야기의 개화의 루프가 붕괴한다.
* 세다와: 챕터 7
* 엘레프: 챕터 8
* 제노: 챕터 9
* 춘: 챕터 10 초반 후반 종막 이야기의 가능성의 루프가 붕괴한다. 1대 서술자들이 돌아온다.
* 카: 챕터 10 후반
* 테오: 챕터 11
* 파에론: 챕터 12
* 후: 챕터 13. 피날레

**중요사건**

**시련의 트리거 발생: 수호자 vs 반역자**

**발생시간대**: 창세기/메의 시대 전체

**원인**: 타우마엘을 포함한 대다수의 음들의 반역 선언

스테이지에서 벌어진 핵심사건.

대의적으로 알려진 이름은 **"안개 전쟁"**. 메의 시대 전체에 벌어진 오랜 시간 걸쳐 이루어진 전쟁으로 이 동안은 마치 안개가 끼인 듯 한치 앞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뜻의 안개 전쟁이란 이름이 붙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충돌한 기간은 메의 시대 중반부터로 이전까지는 팽팽한 신경전과 냉전이 주되었다. 소위 말하는 "술래잡기".

**참여 네임드**

수호자는 **푸른색** 표시 반역자는 붉은색 표시.

수호자의 경우 대다수가 양이며 음의 경우 메디우스만이 참여했다. 나머지는 대다수가 반역자로 돌아서거나 중립을 표방한 것이 다다.

이스타르 p. 네라이던: 총사령관으로서 참전.

메디우스: 중도에 사령관으로 참전.

모이라이 데르에, 스페라/라페온 세인: 의료병력으로 참전.

카르셀 데클리오: 정보병력으로 참전.

세르반 야누스: 정보병력+최전선 수호 병력으로 참전.

아류: 일반 병력으로 참전.

카르마: 중도 참전으로 영령 중 네임드 참전 인원. 정보병력+서포터 병력으로 참전.

라그나르 이데스, 셰이프: 후반부 총력전때 참전.

녹색연합 일부 인원: 후반부 총력전 때 참전. 각각 유청, 이노랑, 바니타로 영령들의 피해손실이 너무 커지자 참전.

**사건의 진행**

대부분이 조율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인 터라 영령들은 초반에는 거의 소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후 조율자들이 영령들에게 참여 의사를 원한다면 참여하라고 전언하였고 이때 소수의 영령들이 전쟁에 참여한다.

메의 시대 중반에는 전쟁의 영향이 인페르마, 펠레시마를 벗어나 게르타니샤와 메르메타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영령들이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조율자를 상대로 이길 자신은 없었던 터라 녹색연합은 중립을 표방하며 전쟁에 그 어떤 의사도 표방하지 않았다.

**사건의 여파**

사건의 여파는 역대 모든 사건 중 두번째로 심각하다. 이날의 일은 현재는 카더라 정도로 남았지만 그때의 여파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무대의 모든 인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음: 조율자 직위 박탈 이후 추방. 타우마엘을 포함한 세명의 대리인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힌다.

양: 3/1의 인원 사망.

영령: 크람시온 궤멸, 민간인들의 몰살, 녹색연합 세대 교체.

**(스포일러)** 숨겨진 시스템? 시련의 트리거 발생

**첫번째 시련 발생**

**발생시간대**: 창세기/제노의 시대 후반

**원인**: 타우마엘로 인해 트리거가 발생한 시련이 야류로 인해 완전히 봉인 해제.

**두번째 시련 발생**

**발생시간대**: 창세기/제노의 시대 후반

**원인**:

사건의 여파

* 1. 숨겨진 시스템 시련의 관측.
  2. 카르페의 검은새의 아이화.

**세번째 시련 발생/1번째 길**

사건의 여파

* 1. 1번째 길이 모든 무대에 뿌려진다.
  2. 객체지정불명화가 새로운 종족으로 탄생한다. 객체지정불명화는 다른 길과 다르게 모든 무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터라 이는 1번째 길이 거의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림바라의 검은 새의 아이화와 동시에 클레시스 가문의 영구적인 저주 시작.

**네번째 시련 발생/2번째 길**

**사건의 여파**

* 1. 2번재 길이 인조 시스템으로 가동되어 방랑자라는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으며 회색, 검정색 영핵의 영구적인 변질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회색, 검정색 핵은 영령들에 의해 뿌려진 터라 핵이라 불리지 실제로는 음양의 원소와 다를 바가 없는 몸이며 그의 하위호환이다.
  2. 4지부 5지부가 궤멸하며 영구적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백귀야행**

발생시간대: 테오의 시대 후반

원인: 클레시스의 저주 중첩&

테오의 시대 초반동안 메르메타를 무법지대로 만든 사건. 메르메타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수 없으며 2회 순환이 되고 나서야 겨우 복구에 성공했다.

**사건의 시작**

카토의 시대 초반. 망령의 기사 현사행이 잠물들에게 각각의 팔과 눈 하나를 영구적으로 잃은 뒤 푸른눈의 응룡 유청에게 치료해줄 것을 요청한다. 유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이라는 가정을 두었으나 상관없다는 그의 대답에 따라 그의 팔을 재생시켜준다. 하지만 온전히 재생이 되지 않은터라 소실된 양쪽 팔과 눈 하나는 귀 판정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족이 영령 -> 반영반귀로 변한다.

클레시스가는 세븐 로드웨이로부터 “우린 당신들을 환영한다. 언제든 도와줄 테니 편입하여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사행은 아무리 봐도 짜고 치는 일 같은데다 모든 일의 원흉인 곳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란 이유로 철저히 거절한다.

이후 클레시스 가문이 고립되는 것은 물론 정신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세븐 로드웨이는 고립 당한 클레시스가 인원들이 자연스레 세븐 로드웨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계략을 꾸민다. 이후 클레시스의 고립을 위해 현사행 포함 클레시스와 연을 끊은 가문 인원들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 사건의 시작. 이후 현사행을 필두로 저주를 피하기 위해 애쓴 클레시스 출신 영령 모두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메르메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백귀야행이 발생한다.

**사건의 여파**

이 사건 이후로 이름을 바꿔도 신분을 세탁해도 일가와 연을 끊어도 저주는 그대로 발동되며 주위 사람들마저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회에 클레시스 출신 영령들을 암묵적으로 배척하게 된다. 안 그래도 저주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척가지 당하자 이후 세력을 잡은 심향을 필두로 가문 내 인원들은 세븐 로드웨이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탁을 승인하였고 현사행은 가문에서 이탈한다.

다만 심향은 *세븐 로드웨이가 자신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백귀야행을 일으켰단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고* 계약 조건으로 바니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독점하는 것을 내걸었다. 이 사실은 유향 포함 단야도 알지 못했다. 심향이 침묵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1. 바니타 클레시스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싶어서 2. 이유를 알면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알았기에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한 것이었다.

**다섯번째 시련 관측/가장 서늘한 여름**